

낙후지역 유아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서 봉 연*
이 춘 재**

- | | |
|-------------------------|----------------|
| I. 문제제기 | IV. 연구의 목적과 내용 |
| II. 이론적 배경 | V. 연구방법 |
| III. 외국의 보상교육 유아교육 프로그램 | VI. 결론 및 제언 |

I. 문제제기

1980년도에 유아교육의 확대가 시정목표의 하나로 발표되면서부터 유아교육 분야에는 급격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우선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급수로 보면 1980년에서 1983년말까지 4년간에 약 10,000학급으로 증가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유치원이 세워진 1890년에서 부터 1979년말까지 세워진 학급수가 약 2,000개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때, 불과 4년동안에 과거 80년간의 증가수의 5배나 되는 놀라운 증가인 것이다. (이연섭, 1983). 이러한 유아교육기관의 증가는 유아교육 활성화의 일차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되어야 할 점이지만 이러한 외형적이고 양적인 증대가 곧 유아교육의 내실을 보장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문교부는 1980년도부터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개발 계획을 세워 다양한 자료들을 개발하여 보급에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괄목할 만한 업적을 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월별로 짜여진 「유아교육 자료집」 10권을 비롯하여 「유아교육을 위한 그림책」 1, 2, 3집 30권, 「교사용 그림자료」 2권과 「어린이 노래동산」, 「이야기자료집」 일상용품을 활용한 「교육자료 제작 활용집」 「슬기로운 자녀교육」 등 61종의 교재가 개발되어 전 유아교육기관에 무상으로 보급되었다(김 재은, 1983). 이밖에도, 행동과학연구소와 같은 연구기관에 위촉해서 개발한 교재도 상당수 있으며, 출판사나 유아교구사 및 관계분야의 학자들이 개별적으로 제작한 교재, 교구들도 여러가지가 시판되고 있다. 이와같은 문교부의 교재, 교구개발의 노력과 관련기관 및 인사들의 공헌은 유아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 성심여대 심리학과 조교수

*** 본 연구는 1982년도 아산재단의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그러나, 지금까지 개발 보급된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재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내용적으로 좀더 깊이 검토해 보면 한국 교육 개발원이 조사하여 발표한 보고서(한국 유아교육의 현황분석, 1982)에서 지적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 유아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은 획일적 성향을 띄우고 있다. 1982년에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됨으로써 유아교육기관은 유치원과 새마을 유아원으로 이원화되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나 각각의 유아교육기관이 각각의 고유한 특색을 살리기 보다는 별다른 특색없이 대체로 비슷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창의적인 방법을 활용하기 보다는 주로 예능방면에 치중하고 있어 지금까지 해 오던 방법을 답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이 재창, 김 성일, 고 진영, 1982).

특히,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유치원과 변두리 저소득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새마을 유아원이 각기의 상황적 조건과 설립취지 및 대상아동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적용, 실시한다는 것은 이론상으로도 모순이거니와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무리를 수반하게 된다. 이와같이 현행 유아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재 및 교구가 문제점을 지니는 원인은 크게 두가지로 지적될 수 있다. 그 하나는 교사의 자질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비록 어떤 단일한 표준적인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재가 주어졌더라도 이를 현장의 실정에 맞추어 신축성있게 효율적으로 변용하여 적용할 수 있을 만큼 교사의 자질이 높지 못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이 영자, 1983). 그리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이나 교재의 구성자체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현행교육프로그램이나 교재가 대상지역 및 아동의 특성에 관한 고려가 결여되거나 부족하기 때문인 것이다.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재의 개발에 있어서는 전자 보다 후자의 문제가 더 기본적이라고 생각된다.

새마을 유아원이 설립한 이후로 유아교육기관이 이원화되고 그 수도 증가일로에 있으며 설립지역도 광역화되어가므로, 이제 유아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재도 각 지역의 특성 및 가정배경과 아동의 특성 및 발달수준에 따라 다양화 되어야 할 당위성과 필요를 인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이 기숙, 1983). 다시 말하면, 종래의 유치원 프로그램이나 그것에 준해서 만들어진 대동소이한 현행프로그램의 모순과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상지역과 대상아동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참고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과학적인 조사연구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있어서는 일차적으로 저소득 변두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유아원 주변 지역의 생태학적 특성과 취원아동의 특성 및 발달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사활동을 전개하기 전에, 저소득 변두리지역의

유아원 프로그램은 왜 다른 지역의 유치원 프로그램과 달라야 하는가? 이에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유아교육의 목적은 어린이의 현재와 가까운 장래의 생활상황(Lebenssituation)에 대한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신장해 나가는데 있다는 점과 관련된다. 이 점은 상황중심 유아교육(Situation-orientierte Vorschulerziehung)을 제창하고 있는 서독의 Zimmer를 중심으로 한 일단의 학자들의 주장으로서, 이들에 의하면 유아교육은 어린이가 당장의 또는 가까운 장래의 현실적 상황이나 필요와는 무관한, 추상적인 지식이나 비실용적인 기술을 습득케 하는데 주안점이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생활상황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직접적인 환경에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육프로그램의 작성이나 교육활동의 출발점은 어린이의 실제 생활상황이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은 현재의 생활상황과 그의 변화에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저소득 변두리지역에 사는 어린이들의 생활상황은 다른 지역과 같을 수가 없으므로, 그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당연히 다른 지역과 다르게 구성되어야 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어린이의 생활상황의 특징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은 현실적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학습을 교육과정에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Eimmer, 1973).

두번째는 유아교육이란 본질적으로 형식적인 교육과 비형식적인 교육의 양면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된다.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유아교육의 중심이 형식적인 교육기관을 통한 구조화된 교육에 두고 있음을 볼 수 있으나, 가정의 비형식적이고 비구조적인 교육기능을 최소화하고 부모의 적절한 역할을 도외시 하는 그러한 형태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수반하게 된다고 지적할 수 있다(정 원식, 1983). 이렇게 볼 때, 유아교육은 형식적인 교육에만 의존할 수는 없으며, 가정과 부모에 의한 비형식적인 교육이 형식적인 교육에 못지않는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가정과 부모에 의한 비형식적인 교육은 부모와 자녀간 또는 기타 구성원과 어린이간의 상호작용의 양태와 질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어머니와 어린이와의 상호작용이다. 어린이의 성장, 발달에 있어서 어머니는 긍정적인 면에서나 혹은 부정적인 면에서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될 수 있거니와 지금까지 보고된 많은 관련연구들이 또한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어린이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성(responsiveness)은 출생 직후부터 어린이의 애착형성(attachment)에 영향을 미치며, 이 시기에 형성된 어머니와의 애착은 이후의 사회성 발달과 성격형성을 좌우하게 된다. 예컨대, 어머니와 어린이 사이의 따뜻한 눈맞춤이나 피부접촉이 빈번하고 수용적인 분위기일 때 어머니에 대한 애착형성은 용이하고 강한 애정적유대로 발달된다. 이것이 일반화되어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신뢰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며, 성격도 또한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간다(Ainsworth, 1972, Bowlby, 1969).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고 다루는 방식여하에 따라 어린이의 감각적 예민성이 좌우되며 주의 및 지각의 선택성이 방향지워지고, 대상의 인지양식이 수로화(水路化)된다. 또한, 어머니와 어린이와의 상호관계는 언어습득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어머니가 바람직한 언어환경을 만들어 줄때, 다시 말하면 빈번한 언어적 교섭과 적절한 자극과 조력을 해 줄때 어린이의 언어발달은 촉진된다. 그 결과 어린이의 전반적인 인지발달이 향상되어가는 것이다(정 원식, 1983, Cajden, C. B., et al. 1973, Harper, 1971).

이러한 점에서 고찰해 볼때, 저소득 지역의 어머니와 어린이간의 상호작용에는 문제성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저소득지역 유아원의 어머니들은 파출부, 행상, 노점상 같은 일급 노동자가 많기 때문에, 저소득지역의 어린이들은 상당수가 모성실조 상태에서 자라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성장 발달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대인적 접촉과 애정 및 수용적 격려등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므로 저소득지역의 유아교육프로그램은 상술한 바와 같은 상황적 조건으로 인해서 충분히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어머니의 역할을 보상해 주는 가정보완적인 측면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세번째는 환경의 취약성이 어린이의 발달결손을 초래한다는 사실과 연관된다. 어린이들의 성장 발달에 영향주는 요인은 비단 어린이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비형식적 교육만이 아니라, 주위환경의 제반 조건들이 성장 발달의 수준과 질을 결정하는 영향력을 구사한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주위환경의 제반조건들이란 지역사회의 물리적 문화적 환경과 가정의 경제적 조건 문화시설 인적환경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환경적 조건들이 직접 간접으로 어린이의 성장 발달에 촉진적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억제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예컨대 지역사회의 지리적 조건이 번두리의 고지대 일때에는 상하수도 시설, 교통수단등이 제약을 받으므로 문화시설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음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성장과정에서 어린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 문화적 자극이 제한되므로 발달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가정 환경조건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바, 빈곤가정의 경제적 조건은 생존과 성장에 가장 기본적인 식생활을 제약하므로써 신체발달을 제한하며, 문화시설에 의한 교육적 자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인지적 발달을 또한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관련 연구들의 보고에 의하면, 저소득지역의 빈곤가정 아동들이 나타내는 발달지체현상의 현저한 특징은 첫째 언어능력의 부족이며,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등의 사고능력이 뒤떨어질 뿐만 아니라, 인지양식에 충동적인 경향을 보이고 외부자극을 단지 피상적인 단서에 의해서 수용 판단하며, 사회인지(social cognition)에 있어서는 타인의 조망을 수용하는 능력이 부족

하고 부정적이라는 것이다(한 충효, 1982). 이와같이 해서 나타나는 발달결손현상은 연령과 더불어 누적되며 그 발달 결손 회복은 용이하지 않다(이 홍우, 1976, Bloom, 1964, Honjik, 1967, ; Scarr-Salapatek, 1975). 그러므로 이러한 발달결손의 효과는 심각한 교정곤란성이 야기되기 전에 적절한 보상교육이 제공되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지역에 대해서는 가정과 지역 사회전반에 걸친 빈곤문화의 부정적인 측면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빈곤문화가 지배하는 저소득지역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나태하며 불결하고 준법성이 낮으며 공격적인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성격적 특징은 결코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회경제적 여건에서 비롯되는 상황적 조건과 유관한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Langner, T.S., Gersten, J.C., and Einsber, J.G., 1977). 물론 빈곤문화생성의 원인에 관해서는 이론(異論)이 많으나, 여기서 문제는 특정문화가 일단 형성된 후에는 문화의 특성이 그 문화권내 주민들의 의식구조 및 행동양식을 규정한다는 점이다. 어린이의 경우도 예외일 수 없다. 어린이들은 부모를 비롯한 가족들이나 다른 이웃 사람들의 행동양식을 관찰학습을 통해 습득하게 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때 저소득지역의 유아교육프로그램은, 그들의 발달결손을 메꾸어 줄 수 있는 보상적 배려와 발달장애를 교정해 줄 수 있는 치료교육적 배려도 아울러 요구된다고 하겠다.

네번째로 지적되는 점은, 교육은 어떠한 경우도 피교육자인 아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명제와 연관된다. 다시 말하면, 상술한 바와 같은 저소득지역 유아원의 어린이들은 그들이 놓인 상황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다른 지역의 어린이들과는 상이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인지적 발달과 신체적 발달에 있어서 뒤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문제성을 지닌 아동이 많다는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은 저소득지역 어린이들의 제반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지역의 유아원에서 다른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해당지역의 환경적 사회·경제적 여건과 아동들 자신의 특성 및 필요에 부응한 저소득지역용 교육프로그램과 교재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Ⅲ. 외국의 보상적 유아교육 프로그램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수혜아동(disadvantaged children)을 위해서는 그들의 발달결손을 보완할 수 있는 보상교육적 프로그램이 필요한 바, 외국에서는 이미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실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보상적 유아교육 프로그램은 미국의 헤드 스타트(Head Start) 프로그램이다.

1964년 가을 미국정부의 경제기획사무소는 빈민아동을 돕기 위해서 “어린이 부대(Kiddie korps)”를 창설할 것을 논의하고 그 이름을 Head Start Project 라고 개칭하였다. 이 기구의 목적은 아동들에게 건강과 영양 및 교육의 경험을 제공하여 주는데 있었다. 하층계급의 아동들에게 학교에 입학하기전에 여름프로그램을 충분히 제공하여, 학교생활에의 적응을 돕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빈곤의 악순환을 깨트려 보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헤드 스타트 사업을 시행한 첫 여름동안 2,500개의 센터에 652,000명의 아동이 참여하였으며, 채용된 교사는 41,000명, 또 그밖의 직원과 자원봉사자까지 포함하면 직원은 250,000명이나 되었다. 1965년 8월에 존슨대통령은 Head Start Project 를 여름뿐만 아니라 일년 내내 계속할 것을 공고하였다(이 경우, 1981).

Head Start Project 는 유아교육운동에 큰 공헌을 하였다. 즉, 일반대중에게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켰으며, 아동발달센터의 개념을 이해시킴으로써 아동에 대한 여러가지 조기 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그러나 Head Start Project 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초기의 연구에서는 지능지수의 증가, 특히 지능과 언어발달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진전들을 보여주었다.⁷⁾

그러나 그후 Wold 와 Stein(1966)의 연구에서는 앞의 연구 결과가 부정되었으며, Head Start Program 의 효과에 관한 가장 체계적이고 통제된 Milber 와 Dyer(1975)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보고를 했다. 즉, 그들은 네가지 서로 다른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유아원과 유치원을 거쳐서 국민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지능지수를 측정하였다. 특수 프로그램으로 교육받은 아동의 지능지수는 교육받은 당시에는 통제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나, 차차 그 차이가 없어져서 국민학교 2학년이 되면서부터는 교육 효과가 거의 지능지수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연구결과로 보면, 조기의 보상교육이 지속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결과는 조기의 보상교육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자면 학교에서도 이와같은 보상교육이 계속되어야 하며,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의 형태도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동시에 시사해 주고 있다.

이와같은 연구결과에 대응하여 Follow Through Project 라는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아동들은 Head Start Program 을 끝낸 후에도 深化프로그램을 계속 제공받으면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게 되었다. 1968년에 시작된 Follow Through Project 는 유치원부터 국민학교 3학년까지를 연결하는 것으로서, 유아교육의 장기계획과 국민학교와의 연계성을 강조하면서 상당히 다양한 유아교육과정이 개발되었다. 대학부속 유아교육기관을 통하여 개발된 많은 유아교육 프로그램은 독특한 철학적 심리적 기반을 가지고 「유아교육과정 모델」로서 지역 사회와 아동의 특성에 따라 선택되도록 19가지 모형이 개발되어 있다(이 기숙, 1983).⁸⁾

한편 Head Start Project의 평가연구에 참여했던 일군의 심리학자들은 유아교육의 효과는 인생의 초기에 시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부모의 태도 변화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가정하에 정부의 후원으로 조기보완교육(Early Intervention Program)을 시작했다. 그 중에서 Ira Gordon(1975)은 아기가 생후 3개월 되었을 때 훈련받은 보모가 가정을 방문하여 아기의 어머니에게 아기와 함께 지내는 방법과 아기를 돌보는 방법 및 아기에겐 장난감을 주고 놀게 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게 했다. 이러한 가정방문은 아기가 3살이 될 때까지 계속했다. 그 결과는 매우 놀라운 것이었다. 지능이 통제집단에 비해 현저히 발달했고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는데 자신이 생겼다. 특히 아기를 칭찬하고 처벌하는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었고 아기의 언어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증가했으며, 집에 책이나 잡지 혹은 신문을 구독하거나 빌리는 경향이 늘어났다. 이 연구결과로 미루어 보건데, 어머니와 아동과의 상호작용의 양식과 어머니의 행동이 변화되면 이와같은 효과는 지속될 것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하여 보상교육은 조기교육과 부모의 교육을 강조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

Ⅵ. 연구의 목적과 내용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유아교육은 어린이가 생활하고 있는 가정과 지역사회의 생태학적 특성과 아동 자신의 발달적 특성을 심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유아교육시설과 가정이 협동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이론적 맥락에서, 본 연구는 서울 저소득 번두리지역 유아원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저소득지역과 도심 지역의 중산층 주택가의 물리적 문화적 환경을 조사 비교하고, 이 두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의 신체적 인지적 발달수준을 측정 비교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고자 한다.

1) 지역사회 환경조건

- ① 주위의 청결상태
- ② 위생 및 의료시설
- ③ 생활편익 시설
- ④ 유아교육 관련시설

2) 가정의 생태환경

- ① 주거상황
- ② 가족배경

- ③ 가족의 문화활동
- ④ 위생 및 건강관리
- ⑤ 영양섭취
- ⑥ 심리적 환경

3) 아동의 발달수준

- ① 신체발달수준
- ② 운동발달수준
- ③ 인지발달수준

V. 연구방법

1) 조사대상

(1) 대상지역

조사대상지역은 중상층이상에 속하는 도심지역과 저 소득층에 속하는 변두리 낙후지역으로 구분되는 바, 지역별 조사 가구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 도심지역

- ① 영동 및 여의도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중상층이상의 아파트 19가구
- ② 시내주택가에 위치하고 있는 중상층이상의 단독 주택 11가구

○ 낙후지역

- ① 산지대인 관악구 신림 7동일대의 12가구
- ② 하천지대인 강서구 목동 및 신정동 일대의 10가구
- ③ 평지대인 강서구 목동의 8가구

(2) 조사대상자

조사대상자는 상기한 도심지역과 낙후지역의 두 지역에서 건강상태가 양호한 만 5세의 취원연령의 아동(1년 후에 입학할 아동) 60명(각 지역 30명씩, 남녀 동수)과 그들의 어머니 60명이었다. 대상아동들은 연령을 동일하게 하고 출생월별로는 아래와 같이 고루 분포되도록 했다.

(3) 방법 및 절차

본 조사는 유아교육기관에 교사로 종사하는 2명의 훈련된 연구자가 유치원 또는 유아원에 취원한 아동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미리 작성된 질문지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인지발달에 대한 검사는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취원한 3월에 1차검사를 하고 10개월 후에 다시 재검사하여 아동들의 발달수준을 비교하였다.

표 1. 출생월별 조사대상 아동수

출 생 월 별	도심지역 아동	낙후지역 아동
3— 4月	6	6
5— 6月	6	6
7— 8月	7	7
9—10月	6	6
11—12月	5	5
계	30	30

(4) 결과 및 해석

① 주위의 청결상태

주변의 청결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하나의 준거로서 쓰레기 처리 상황을 조사해 본 결과 표 2와 같다.

표 2. 쓰레기 처리상태

쓰레기 처리 상태	단위 : %	
	주거지역	낙 후 지역
청소원이 수거해 간다	100.0	13.3
청소차가 오면 각 가정마다 갖다 버린다	—	16.7
근처의 빈터에 그냥 버린다	—	70.0
계	100.0	100.0

(조사대상 가옥수 : 지역당 30가구)

위의 표 2에서 보면, 마을의 청결 및 위생과 관련이 깊은 쓰레기 수거상태도 지역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즉, 도심지역의 고급주택 주변에서는 청소원이 수거해 가지만, 변두리 낙후지역에서는 빈터에 쓰레기를 그냥 내다 버리는 가정이 70%나 될 만큼 많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보아, 변두리 낙후지역은 오물수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위생상 불결한 지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불결한 주위환경에서 매일 생활하면서 성장해가는 변두리 낙후지역의 아동들은 청결에 대한 감각의 발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밖에 그냥 내다 버리며, 쓰레기를 차에 갖다 버린 후 떨어진 쓰레기로 어지럽혀진 길을 아무도 쓰는 사람이 없이 지나쳐 버리는 것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은 관찰학습의 결과로서 휴지나 과자봉지 같은 것을 길가에 던져버리는 것 째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게끔 되어 버린다. 깨끗한 주위 환경은 그것이 지니는 분위기가 주민으로 하여금 휴지같은 것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하는 금지적 영향을 미치는 데 반해, 더러운 환경은 불결함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더 조장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변두리의 불결한 환경조건에서 성장하는 낙후지역 아동들은 청결성에 대한 감각이 둔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② 위생 및 의료시설

주민이 이용하는 위생 및 의료시설상황을 알아 본 것이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표 3. 각 가정에서 성인도보로 10분 거리 이내에 있는 위생 및 의료시설수

단위 : %

시설내용	거주지역	시설수							계
		없	다	1 개	2 개	3 개	4 개	5개 이상	
목욕탕	도심지역	6.7	26.7	40.0	16.7	6.7	3.3	100	
	낙후지역	53.3	46.7	—	—	—	—	100	
병원	도심지역	3.3	16.7	—	16.7	6.7	56.6	100	
	낙후지역	46.7	53.3	—	—	—	—	100	
약국	도심지역	—	3.3	3.3	30.3	30.3	33.3	100	
	낙후지역	6.7	50.0	26.7	16.6	—	—	100	

(조사대상 가옥수 : 지역당 30가구)

표 3을 보면, 도심지역에는 집에서 도보로 10분이내의 거리에 목욕탕이 2개 있다고 대답한 가구가 40%인데, 낙후 지역에는 53.3%가 하나도 없고 나머지는 1개 있다고 대답했다. 낙후 지역 아동들은 목욕탕이 인근에 없기 때문에 자주 목욕을 못가는 것이 습성이 되어 아동들의 청결개념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인근의 의료시설을 알아 보면, 도심지역에는 병원이 5개 이상 있다고 대답한 가구가 56.6%가 되는데 반해서, 낙후지역에는 2개 이상 있다고 대답한 가구는 전혀 없다. 약국은 도심지역의 경우 두 가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가구가 인근에 3~5개씩이나 있다고 대답했는데 반해서, 낙후지역에는 1개 있다고 대답한 가구가 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없다고 대답한 가구도 2가구 있다. 이것으로 보건데, 낙후 지역에서는 의료시설을 이용하기에도 불편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같이 낙후지역에 의료시설이 적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낙후 지역 주민들이 의료시설의 이용률이 적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낙후지역 아동들의 건강 관리가 도심지역의 아동들에 비해 소홀할 것이 예상

표 4. 각 가정에서 도보로 십분 이내 거리에 있는 편의시설 수

단위 : %

시설내용	거주지역	시설수							계
		없	다	1 개	2 개	3 개	4 개	5개 이상	
슈퍼마켓	도심지역	—	46.7	23.3	10.0	20.0	—	100	
	낙후지역	33.3	66.7	—	—	—	—	100	
시장	도심지역	10.0	56.6	33.3	—	—	—	100	
	낙후지역	33.3	66.7	—	—	—	—	100	
은행	도심지역	—	46.7	16.7	26.7	—	10.0	100	
	낙후지역	76.7	23.3	—	—	—	—	100	
버스정류장	도심지역	—	6.7	13.3	23.3	40.0	16.7	100	
	낙후지역	40.0	60.0	—	—	—	—	100	

(조사대상 가옥수 : 지역당 30가구)

된다.

③ 생활편익 시설

일상생활에 편익을 제공해 주는 시설을 알아 본 결과는 표 4에 나타나 있다.

표 4를 보면, 도심지역에는 시장을 제외한 다른 시설이 인근에 하나도 「없다」로 대답한 가구는 한 가구도 없는데 반해서, 낙후지역에는 하나도 「없다」고 대답한 가구가 많다. 도심지역에 시장이 없다는 것은 시장이 슈퍼마켓으로 대체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낙후지역에는 슈퍼마켓이 없거나(대답 가구수 : 33.3%), 겨우 1개(대답 가구수 : 66.7%)가 있는데 반해, 도심지역에는 2~4개가 있다고 대답한 가구수도 상당수(10%~23.3%) 있다. 낙후지역에는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용품을 파는 시장마저도 「없다」고 대답한 가구가 30%를 넘는다. 특히 금전거래가 주업무인 은행은 도심지역의 경우 없는 곳이 없고 1개 있다고 한 가구수가 근 반수가 되며 2~5개가 있다고 대답한 가구수도 나머지 반을 차지하고 있다.

교통편리의 한 지표가 되는 버스 정류장의 유무를 보면, 도심지역에는 인근에 「없다」로 대답한 가구는 전무한 대신에 3~5개소가 있다고 대답하는 가구가 거의 80%나 되는데 비해, 낙후지역에는 1개소가 있다고 대답한 가구가 60%, 하나도 「없다」고 대답한 가구가 40%나 된다.

④ 유아교육 관련시설

표 5는 유아교육과 관련이 있는 시설로서 놀이터와 학교의 유무를 알아 본 것이다.

표 5. 유 아 교 육 관 련 시 설 수

단위 : %

시설내용	거주지역	시설수							계
		없	다	1 개	2 개	3 개	4 개	5개 이상	
놀 이 터	도심 지역	3.3	23.3	10.0	13.3	40.0	10.0	100	
	낙 후 지역	56.6	43.4	—	—	—	—	100	
학 교	도심 지역	—	30.0	33.3	30.0	6.7	—	100	
	낙 후 지역	40.0	60.0	—	—	—	—	100	

(조사대상 가족수 : 지역당 30가구)

도심지역에는 놀이터가 없는 가구가 거의 없으나 낙후지역에는 56.6%가 하나도 없다고 대답했다.

놀이터의 유무는 아동의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발달에 상당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낙후지역의 놀이터 수가 이와같이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의 유무를 살펴보면, 도심지역에는 학교없는 곳은 없고 인근에 1개 학교가 있다고 한 가구수가 30%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2~4개 학교가 있다고 대답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낙후지역에는 학교가 하나도 없는 경우가 40%이고 1개 있다고 대답한 가구수가 60%

가 된다. 학교시설은 유아원 아동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나 그들이 곧 입학하게 될 연계교육시설로서 더욱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가정의 생태환경

① 주거상황

가정의 생태환경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서 주택 소유 형태와 동거 세대수, 주거 공간, 주거시설, 실외놀이 공간등을 표 6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

표 6. 주택소유 형태와 동거세대

거주형태		단위 : %	
		도심지역	낙후지역
주택소유형태	자 가	83.3	16.7
	전 세	16.7	40.0
	월 세	0.0	43.3
계		100.0	100.0
동거세대	단독세대	53.3	23.3
	두세대	43.4	36.7
	세세대	3.3	10.0
	네세대이상	0.0	30.0
계		100.0	100.0

(조사대상 가옥수 : 지역당 30가구)

표 6에 의하면, 낙후지역 주민들은 주택 소유율은 도심지역 주민들에 비해 4분의 1도 못된다. 즉, 낙후지역의 주민들은 불과 16.7%밖에 자가를 소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 세, 월세로 있는 세대가 각각 40%, 43.3%나 된다. 다시 말하면 낙후지역 주민들은 근 4분의 3이나 되는 세대가 셋방에 사는 형편이다. 따라서 단독주택에 사는 세대는 23.3%에 불과하고 두세대가 같이 사는 경우가 36.7%, 세 세대는 10%이며, 네 세대 이상 같이 사는 세대는 30%나 된다. 이러한 주거

상황은 조 영기(1983)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주거 공간(표 7)을 보면, 도심지역의 종류가정은 20~30평이 대다수(63.3%)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낙후지역은 5평미만이 대다수(66.7%)를 차지하고 있다. 사용하고 있는 방수를 살펴보면, 도심지역에서는 80%정도의 가정이 3~4개의 방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낙후지역에서는 그에 맞먹는 수의 가정(76.7%)이 단칸방에 살고 있다. 따라서 낙후지역에는 아동이 따로 쓰고 있는 방은 전무한데, 도심지역에서는 83.3%의 가정이 아이들에게 따로 방을 할애하고 있다. 사람이 협소한 주거공간에 많은 인구가 밀착해서 생활하게 하면 정서가 불안해지고 공격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보고가 있다.(최 상진 1982). 이에 비추어 본다면, 낙후지역의 협소하고 밀도높은 주거공간은 그곳에서 자라고 있는 아동들의 정서 및 성격형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낙후지역의 아동들의 보편적인 공격성의 원인도 부분적으로는 그들의 협소한 주거공간에서 비롯될 것이다.

가정생활의 문화수준을 알아볼 수 있는 한 척도로서 주거시설과 생활용품 소유상황을 조사해 본 결과는 표 8 및 표 9와 같다. 먼저 표 8에서 보면, 도심지역에서는 조사 대상 가구 모두가 입식부엌과 수세식 화장실(한 가구만 예외)을 사용하고 있고, 상수도가 다 들어와

있는 데 반해, 낙후지역에는 아직도 입식 부엌은 하나도 없고, 재래식 부엌(46.7%)과 간이부엌(53.3%)을 사용하고 있는 데, 부엌 크기는 대개 1/2평 미만이었다.

화장실을 보면, 수세식은 하나도 없고 재래식이 근 3분의 2 정도로 많고 나머지(36.7%)는 이웃 세대와 같이 공동변소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상수도가 들어와 있는 가구가 겨우 반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공동수도, 펌프, 공동펌프 등을 사용하고 있다.

두 조사대상 지역에 있어서 부엌, 화장실, 상수도와 같은 시설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시설 자체가 다르다는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설이 주민들의 생태학적 차이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도심지의 경우처럼 부엌이 입식으로 되어 있고 식당이 붙어 있으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부엌일을 관찰하기도 하고 일을 돕기도 하고 혼자 음식을 갖다먹고 치우고 하는 일을 쉽게 학습할 수 있으나, 낙후지역 아동들은 그와같은 상황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자연스러운 관찰학습의 기회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표 9에서와 같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용품의 소유에서도 도심지역과 낙후지역의 차이는 현격하다. 그러나 TV 소유에서는 소유율이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도심지역의 가정은 칼라 TV를, 낙후지역의 가정은 흑백 TV를 소유하고 있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TV를 교육매체로 사용할 경우에도 낙후지역 아동에 대해서는 차이적인 배려가 요청된다. TV 이외의 문명의 이기로부터 낙후지역 아동들이 얻을 수 있는 직간접 경험의 기회는 거의 결여된 상태에 있다.

아동이 가정외에서 즐길 수 있는 놀이 공간을 표 10에서 살펴보면, 도심지역 아동은 73.3%가 규정된 놀이터에서 놀이를 하는 데 반해 낙후지역 아동은 76.7%가 골목길에서 놀이를 한다. 놀이 공간의 청결상태에서도 도심지역은 96.7%가 깨끗한 장소로, 낙후지역은 86.7%가

표 7. 주거공간 비교

주 택 의 상 태		단위 : %	
		도심지역	낙후지역
건물 평수	5평 미만	—	66.7
	5평~10평 미만	—	30.0
	10평~15평 //	—	3.3
	15평~20평 //	20.0	—
	20평~30평 //	63.3	—
	30평 이상	16.7	—
계		100.0	100.0
방수	1개	—	76.7
	2개	20.0	23.3
	3개	50.0	—
	4개 이상	30.0	—
계		100.0	100.0
아동방유·무	있다	83.3	—
	없다	16.7	100.0
계		100.0	100.0
마당유·무	있다	36.7	16.7*1
	없다	63.3*2	83.3
계		100.0	100.0
마루 또는 거실	없다	—	83.3
	2평 미만	3.3	16.7
	2평~5평 미만	43.3	—
	5평~10평 미만	36.7	—
	10평 이상	16.7	—
계		100.0	100.0

* 1. 2평 미만 * 2. Apt 놀이터 있음
(조사대상 가옥수 : 지역당 30가구)

표 8. 주거시설의 종류 및 형태 단위 : %

시설의 종류 및 형태		거주지역		도 심 지 역	낙 후 지 역
		도 심 지 역	낙 후 지 역		
부 역	입 식			100.0	—
	재 래 식			—	46.7
	간 이 부 역			—	53.3
		계		100.0	100.0
화 장 실	수 세 식			96.7	—
	재 래 식			3.3	63.3
	공 동 변 소			—	36.7
		계		100.0	100.0
상 수 도	상 수 도			100.0	46.7
	럼 프			—	13.3
	공 동 수 도			—	20.0
	공 동 럼 프			—	20.0
		계		100.0	100.0

(조사대상 가옥수 : 지역당 30가구)

표 9. 전자제품 소유 정도 단위 : %

가전제품 종류	지 역		가전제품 종류	지 역	
	도 심 지 역	낙 후 지 역		도 심 지 역	낙 후 지 역
전 화	100.0	10.0	카 메 라	96.7	10.0
T V	100.0	93.3	냉 장 고	100.0	16.7
카 셋 트 테 이 프	96.7	26.7			

(조사대상 가옥수 : 지역당 30가구)

표 10. 실 외 놀 이 터 의 상 태 단위 : %

설치된 놀이장소와 상태		거주지역		도 심 지 역	낙 후 지 역
		도 심 지 역	낙 후 지 역		
놀 이 공 간*	빈 터			33.3	30.0
	골목길			20.0	76.7
	놀이터			73.3	13.3
	운동장			10.0	6.7

* 1인당 한가지 이상 선택케 하였으므로 총계는 100% 이상됨.

청 결	깨끗한 편이다			96.7	13.3
	지저분한 편이다			3.3	86.7
안 전 도	위험성이 있다			6.7	26.7
	위험성이 없다			93.3	73.8

(조사대상 가옥수 : 지역당 30가구)

지저분한 장소로 대담해, 낙후지역 아동은 비위생적인 적합치 못한 공간에서 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도에서도 낙후지역은 26.7%가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위험한 장소에서 놀이를 하는 아동이 낙후지역에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가족배경

표 11에 의하면 부모의 연령은 대부분 35세 전후이다. 그리고 부모의 학력은 부의 학력이 도심지역은 거의가 대졸이상이나, 낙후지역은 전체가 고졸이하 이고 국졸이하도 33.3%나 된다. 모의 학력에서도 도심지역은 전체가 고졸이상이며 그중 대졸이 86.7%인데 비해, 낙후지역은 전체가 중졸이하로 부모의 학력에서 극단적인 대조를 보인다.

가족의 월수입을 보면 도심지역은 거의 월 50만원 이상의 수입을 보고 하고 있으나, 낙후지역은 대부분 월 20만원 전후의 수입이며 월 30만원 이상의 수입 가정은 한 가구도 없고 15만원이하의 극히 낮은 수입 가정도 16.7%에 이른다.

위와 같은 학력과 월 수입의 격차는 부모들의 직업 분포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도심지역의 경우 부의 직업은 회사원(66.7%), 전문직(20%), 경영직(13.3%)으로 직업이 거의 안정되어 있다. 이와는 달리, 낙후지역 부의 직업은 불규칙적인 임금노동자가 66.6%이고 그 외는 운전기사, 정비사, 경비원, 임업등이다. 낙후지역 아동의 모는 63.3%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 파출부, 가내수공업, 공장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36.7%가 가사에 종사하고 있다.

표 11. 가 족 배 경 단위 : %

부모의 인적사항	거주지역		단위 : %	
	도 심 지 역	낙 후 지 역	도 심 지 역	낙 후 지 역
부 의 연 령	36 이상	76.7	63.3	
	30~45	23.3	26.7	
	30 미만	—	10.0	
계		100.0	100.0	
모 의 연 령	36 이상	26.7	13.3	
	30~35	73.3	70.0	
	30 미만	—	16.7	
계		100.0	100.0	
부 의 학 령	대 학 원	26.7	—	
	대	73.3	—	
	고	—	20.0	
	중	—	46.7	
	국	—	33.3	
계		100.0	100.0	

모 의 학 력	대 학 원 졸	6.7	—
	대 졸	86.6	—
	고 졸	6.7	—
	중 졸	—	56.7
	구 졸	—	43.3
계		100.0	100.0
부 의 직 업	회 사 원	66.7	—
	진 문 직	20.0	—
	경 영 직	13.3	—
	불 규 칙 노 동	—	66.6
	상 업	—	10.0
	운 전 기 사	—	10.0
	정 비 사	—	6.7
	점 원·경 비 원	—	6.7
계		100.0	100.0
모 의 직 업	교 사, 진 문 직	30.0	—
	가 내 수 공 업	—	20.0
	공 장 노 동	—	13.3
	파 출 부	—	23.3
	행 상	—	6.7
	무 직	70.0	36.7
계		100.0	100.0
가 족 의 총 수 입	50만원 이상	96.7	—
	30~50만원 이하	3.3	—
	20~30 "	—	30.0
	15~20 "	—	53.3
	10~15 "	—	16.7
계		100.0	100.0

(조사대상 가옥수 : 지역당 30가구)

③ 가족의 문화활동

먼저 외출빈도와 외출내용을 살펴보면, 도심지역의 아동들은 주 1회(36.7%) 또는 월 1회(53.3%) 이상을 부모와 함께 외출하며, 그 내용도 친지방문(73.3%)등의 의례적인 모임외에 교육적 목적의 문화행사(20%)나 그밖의 쇼핑(56.7%), 외식(80%), 교외나들이(70%)등이 대부분이다. 낙후지역의 아동은 부모와 함께 외출하는 경우가 연 2~3회인가정인 70%이고 외출 내용도 의례적인 친척모임(66.7%)등에 거의 국한되어 있다(표 13 참조).

아동을 포함한 전 가족이 참여하는 가족 행사를 보면, 도심지역의 가정은 명절(20%)이나 제사(10%)등 전통적인 행사는 물론 가족 성원 중심의 생일(60%)등 기타 행사에도 많은

표 12. 가 족 외 출 빈 도 단위 : %

		횟 수	도 심 지 역	낙 후 지 역
1	주	1 번	36.7	—
1	달	1 번	53.3	3.3
		2 번	—	—
1	년	1~2번	—	63.3
		3~4번	10.0	6.7
		없 다	—	26.7
계			100.0	100.0

(조사대상 가정수 : 지역당 30가구)

표 13. 가 족 외 출 내 용 단위 : %

내 용	도 심 지 역	낙 후 지 역
음악회, 전시회, 과학관 등의 문화행사	20.0	3.3
백화점, 시장 등 쇼핑	56.7	10.0
외 식	80.0	6.7
교외 나들이	70.0	26.7
회갑, 결혼식을 포함한 친척, 친지방문	73.3	66.7

(조사대상 가정수 : 지역당 30가구) * (하나 이상 선택하였으므로 통계는 100% 이상임)

배려를 하고 있으나, 낙후 지역의 가정은 관습적인 행사(명절, 제사 : 66.7%)에 주로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4).

생일 행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심지역의 가정은 전 가족의 생일을 기념하는 데 비해, 낙후지역의 가정은 아버지나 아동중 한 사람의 생일만 기념하는데 그치며, 심지어는 전 가족의 생일을 모두 그냥 지나치는 가정도 30%나 된다(표 15).

표 14. 주 요한 가 족 행 사 단위 : %

내 용	거주지역	도 심 지 역	낙 후 지 역
	가족의 생일		60.0
명 절		20.0	50.0
제 사		10.0	16.7
크리스마스		6.7	10.0
결혼기념일		3.3	0.0
계		100.0	100.0

(조사대상 가정수 : 지역당 30가구)

표 15. 생 일 행 사 단위 : %

가족의협동	거주지역	도 심 지 역	낙 후 지 역
	온 가족 다한다		100.0
아빠만 한다		—	6.7
아빠와 아동만 한다		—	16.7
아동만 한다		—	20.0
일가족 모두 그냥지 나칠 때가 많다		—	30.0
계		100.0	100.0

(조사대상 가정수 : 지역당 30가구)

표 16. 설빔 또는 추석빔 준비

단위 : %			
행사빈도	거주지역	도심 지역	낙 후 지역
항상한다		46.7	20.0
때때로 한다		40.0	30.0
그냥 지나친다		13.3	50.0
계		100.0	100.0

(조사대상 가정수 : 지역당 30가구)

표 17. 성탄절 선물 준비

단위 : %			
행사빈도	거주지역	도심 지역	낙 후 지역
항상한다		46.7	20.0
때때로 한다		40.0	30.0
그냥 지나친다		13.3	50.0
계		100.0	100.0

(조사대상 가정수 : 지역당 30가구)

표 18. 사진 촬영 경험

단위 : %			
빈 도	거주지역	도심 지역	낙 후 지역
1년에 한번도 없었다		—	63.8
1~3번		16.7	23.3
3~6번		20.0	6.7
7번 이상		63.3	6.7
계		100.0	100.0

(조사대상 가정수 : 지역당 30가구)

가족 행사에 수반되는 생일선물, 성탄절선물 또는 설빔, 추석빔도 도심지역의 가정에서는 대부분(86.7% 이상) 준비를 하고 있으나, 낙후 지역의 가정은 반 수 이상이 준비를 못하고 있다(표 16, 17). 특히 사진기가 필요한 사진촬영 경험은 63.3%의 도심지역 아동이 연 7회 이상 경험한 반면, 낙후지역 아동은 63.3%가 1년에 한번도 사진촬영 경험이 없다(표 18).

④ 위생 및 건강관리

위생적인 건강생활의 기본 요소인 목욕기를 보면, 도심지역의 아동은 전체가 주 1회 이상 하고 있으나, 낙후지역의 아동은 2주 1회가 26.7%에 그치고 2개월에 1회가 30%나 되고 있

표 19. 건강 관리

		단위 : %	
		도심 지역	낙 후 지역
목	1주 2번 이상	53.3	—
	1주 1번	46.7	—
	2주 1번	—	26.7
	1개월 1번	—	43.3
	2개월 1번	—	30.0
예방접종*	PPT	100.0	63.3
	소아마비	100.0	66.7
	홍역	100.0	43.3
	불거리	100.0	6.7
	풍진	100.0	6.7
	BCG	70.0	23.3
	일본뇌염	86.7	3.3

상 비 약 품*	의용제	100.0	50.0
	소화제	93.3	30.0
	설사멈춤약	56.7	3.3
	해열제	96.7	43.3
	진통제	66.7	3.3
	체온계	86.7	—
	붕대, 솜, 반창고	96.7	10.0
	화상약	40.0	6.7
구 총 계	정규적으로 먹인다	66.7	36.7
	한두번 먹었다	30.0	43.3
	한번도 안먹었다	3.3	20.0
치 과*	가봤다	76.7	20.0
	안가봤다	23.3	80.0
	정규적으로 간다	26.7	—
	충치가 생기면 간다	46.7	10.0
	이가 아프다고 해서간다	3.3	10.0
	자주 살핀다	23.3	—
영 양 계	자주 먹는다	26.7	3.3
	한두번 먹었다	50.0	26.7
	전혀 안먹었다	23.3	70.0
위 급 시	병원에 간다	73.3	6.7
	약을 사다 먹인다	20.0	56.6
	나을때까지 둔다	6.7	36.7

(조사대상 가정수 : 지역당 30가구)

* (한가지 이상 선택케 하였으므로 총계는 100% 이상됨)

다. 또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접종, 상비약품의 구비, 구충제 복용, 치과등 병원방문 영양제 복용 위급시 병원 출입등에서도 낙후지역은 도심지역에 비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표 19).

이러한 조사결과에서 낙후지역의 아동은 가정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부모의 인식부족등으로 건강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영양섭취 상태

아동들이 섭취하는 간식을 조사한 표 20을 보면, 낙후지역의 아동은 빵 또는 과자등의 탄수화물 식품에 편중되고 있으나, 도심지역의 아동은 유제품과 탄수화물식품, 그리고 과일등을 동시에 섭취하고 있어, 두 지역간에 영양섭취 상태에도 큰 차이가 난다.

⑥ 심리적 환경

아동이 접하는 가정의 교육적 배경이 되는 심리적 환경을 놀이공간, 놀이내용, 놀이대상, 부모와의 관계, 경험내용 등으로 나누어 조사해 보았다.

표 20. 영 양 관 리

		단위 : %				단위 : %	
	식 품 내 용	도심 지역	낙 후 지역		식 품 내 용	도시 지역	낙 후 지역
간 식 (조사전 날기준)	우유제품	73.3	23.3	간 식 (조사전 날기준)	육류, 난류	13.3	0.0
	청량음료, 아이스크림	13.3	0.0		사탕, 초코렛, 엿	3.3	16.7
	쥬스	6.7	0.0		건과류, 건어류	20.0	0.0
	빵	53.3	46.7		라면	3.3	6.7
	과자	63.3	30.0		떡	10.0	10.0
	과일, 야채류	90.0	23.3		안 먹었다	0.0	20.0

표 21. 혼자놀이 공간

		단위 : %	
놀이공간	거주지역	도 심 지 역	낙 후 지 역
실 내		96.7	77.0
실 외		3.3	30.0
계		100.0	100.0

(조사대상 아동수 : 지역당 30명)

아동의 놀이 공간은 두 지역에 차이없이 실내가 대부분이나 낙후지역의 아동은 30% 정도 실외놀이를 하는데, 그 장소가 골목길 이 대부분이고 놀이내용이 단조로운 것이 특징이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되었지만, 그 공간이 좁고 비위생적인 점이 문제시된다(표 21).

표 22. 놀 이 내 용*

		단위 : %				단위 : %	
놀이내용	거주지역	도심 지역	낙 후 지역	놀이내용	거주지역	도시 지역	낙 후 지역
학습 및 지식 축적을 위한 놀이		56.7	16.7	상상 및 역할놀이		40.0	6.7
신체 발달을 위한 놀이		6.7	13.3	전자오락 및 VTR 카세트 듣기		26.7	—
예술, 창작, 정서 활동을 위한 놀이		60.0	40.0				

(조사대상 아동수 : 지역당 30명)

* (한가지 이상 선택케 하였으므로 총계는 100% 이상됨)

표 22에서와 같이 놀이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심지역의 아동은 창작놀이등의 지적이고 정서적인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놀이를 하고 있고, 낙후지역의 아동은 단순한 신체적 발달을 위한 놀이가 그 주류를 이룬다.

놀이 대상은 도심지역의 아동은 지적자극물이 될 수 있는 장난감을 소지하고 있으며 그 종류가 다양한 데 비해, 낙후 지역의 아동은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그 질이나 양에 있어서도 도심지역의 아동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표 23).

책의 소유에 있어서도 도심지역의 아동은 76.7%가 20권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나, 낙후지역의 아동은 70%가 5권미만의 책을 소지하고 있어 독서의 여건도 크나큰 대조를 보인다(표24).

놀이친구로는 형제, 친구, 부모의 순위로 비교지역간에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부모와

표 23. 장난감 소유 상황

단위 : %

장난감의 종류	거주지역		장난감 종류	거주지역	
	도시 지역	낙후 지역		도시 지역	낙후 지역
학습 및 지식축적을 위한 놀이기구	100.0	6.7	악기류	57.0	—
신체발달을 위한 운동놀이 기구	90.0	16.0	조립식 완구	87.0	10.0
예술, 창작, 정서 활동을 위한 놀이기구	97.0	13.3	집단 운동놀이 기구	6.7	—
상상 및 역할 놀이기구	97.0	63.3	남향성(男向性) 놀이기구	66.7	—
전자오락 기구 및 게임기구	70.0	10.0			

(한가지 이상 선택케 하였으므로 총계는 100% 이상됨)

표 24. 책 소유 상황

단위 : %

	도	심	지	역	낙	후	지	역
5권 미만				—				70.0
5권~10권				6.7				20.0
10권~15권				6.7				3.3
15권~20권				10.0				6.7
20권 이상				76.6				—
계				100.0				100.0

(조사대상 아동수 : 지역당 30가구)

표 25. 부모의 출·퇴근 시간

단위 : %

출·퇴근	시 간	거주지역		도	심	지	역	낙	후	지	역
		도시 지역	낙후 지역								
부 의 출 근	오전	8시 이후					36.7				3.3
		7-8시					63.3				16.7
		7시 이전					—				46.7
		불규칙					—				33.3
모 의 출 근	오전	8시 이후					10.0				—
		7-8시					20.0				20.0
		7시 이전					—				6.7
		불규칙					—				16.7
부 의 귀 가	오후	9시 이후					13.3				36.7
		8-9시					66.7				30.0
		8시 이전					20.0				6.7
모 의 귀 가	오후	9시 이후					—				6.7
		7-9시					—				6.7
		7시 이전					30.0				30.0

의 관계에 있어서는 접촉시간면에서 대조적이었는데, 이는 부모의 직업에 따른 출, 퇴근 시간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표 25).

부모와 아동의 상호 접촉 양상도 비교지역간에 차이를 보인다. 부모와 아동의 대화시간은 주로 저녁 식사후로 응답했는데(표 26), 시간적으로 낙후지역이 도심지역에 비해 아주 짧다. 이는 낙후지역 부모의 출근시간이 도심지역 보다 이르고, 퇴근시간이 늦어 상대적으로 상호 접촉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6. 부모와의 대화 시간

단위 : %

시	간	도 심 지 역	낙 후 지 역
식 사 시 간		3.3	10.0
저 녀 식 사 후		60.0	70.0
아 침 식 사 후		10.0	6.7
점 심 식 사 후		26.7	10.0
T. V 시청		—	3.3
계		100.0	100.0

(조사대상 아동수 : 지역당 30명)

표 27. 부모에 의한 아동의 상벌 경험*

단위 : %

상·벌	상·벌의 시기	거주지역	
		도 심 지 역	낙 후 지 역
상을 받은 경험	생일에	93.3	—
	크리스마스나 명절에	96.7	—
	착한일 했을 때	13.3	—
	엄마 월급날	—	—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의 처벌 및 태도	잘 안한다	—	43.3
	질 책	33.3	36.7
	체 벌	3.3	16.7
	타이름	10.0	20.0
	스스로 해결토록 격려한다	53.3	26.7

(조사대상 아동수 : 지역당 30명)

* (한가지 이상 선택케 하였으므로 총계는 100% 이상됨)

또 다른 면에서의 접촉양상은 상벌체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낙후지역의 부모는 벌을 주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벌을 줄 때는 질책을 가하는 부모가 도심지역 부모보다 많고, 반대로 스스로 해결토록 격려하는 부모는 적다.

아동들이 이야기로만 듣던 곳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경험을 할 수 있는 방문 경험의 내용을 물어 본 결과는 표 28과 같다.

낙후지역의 아동은 관공서, 영화관, 백화점등의 방문 경험이 드물어 문화생활이나 사회 생활의 터전이 될 수 있는 경험을 해 보지 못하고 성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28).

또한 취미나 특기를 키울 수 있는 예, 체능계 학원의 수강 경험에 있어서 도심지역의 아동

표 28. 가 본 곳*

단위 : %

장소의 종류	거주지역		도심지역	낙후지역	장소의 종류	거주지역		도심지역	낙후지역
	유원지	공원				아빠직장	백화점		
유원지	100.0		100.0	70.0	아빠직장	76.7		76.7	20.0
공원	100.0		100.0	83.3	백화점	100.0		100.0	23.3
유원지	100.0		100.0	53.3	수영장	96.7		96.7	23.3
공원	83.3		83.3	20.0	교회, 절	90.9		90.9	83.3
유원지	96.7		96.7	33.3					

(조사대상 아동수 : 지역당 30명)

* 한가지 이상 선택케 하였으므로 총계는 100% 이상됨.

표 29. 학원 수강 경험*

단위 : %

학원종류	거주지역		도심지역	낙후지역	학원종류	거주지역		도심지역	낙후지역
	음악학원	미술학원				응변학원	주산 및 영어회화학원기타		
음악학원	40.0		40.0	—	응변학원	—		—	—
미술학원	63.3		63.3	—	주산 및 영어회화학원기타	33.3		33.3	—
무용학원	3.3		3.3	—					

(조사대상 아동수 : 지역당 30명)

* 한가지 이상 선택케 하였으므로 총계는 100% 이상됨.

표 30. 지난 3년간의 여행경험

단위 : %

빈도	거주지역		도심지역		낙후지역	
	전혀 없었다	1~2번	3~4번	4번 이상	전혀 없었다	1~2번
전혀 없었다	3.3		3.3		93.3	
1~2번	30.1		30.1		6.7	
3~4번	33.3		33.3		—	
4번 이상	33.3		33.3		—	
계	100.0		100.0		100.0	

(조사대상 아동수 : 지역당 30명)

표 31. 지난해 동안의 야외나들이 경험

단위 : %

빈도	거주지역		도심지역		낙후지역	
	전혀 없었다	3번 미만	3번~5번	5번 이상	전혀 없었다	3번 미만
전혀 없었다	3.3		3.3		90.0	
3번 미만	6.7		6.7		10.0	
3번~5번	26.7		26.7		—	
5번 이상	63.3		63.3		—	
계	100.0		100.0		100.0	

(조사대상 아동수 : 지역당 30명)

은 미술과 음악학원의 수강 경험자가 약 반수이나, 낙후지역의 아동은 학원 수강 경험이 전무하다(표 29).

사회 접촉의 산 경험이 될 수 있는 여행경험에서도 도심지역의 아동은 대체로 연 1회 이상의 경험이 있지만, 낙후지역의 아동은 지난 3년간 1번 정도가 6.7%에 불과하고 93.3%가 여행경험이 전무하다. 더구나 도심지역의 아동이 경험한 여행은 고적답사나 관광여행등인데, 낙후지역의 아동이 경험한 여행은 명절날 고향을 찾는 경우이다(표30).

휴일등의 하루 정도로 비교적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야외나들이 경험은 도심지역 아동의 90%가 연 3회 이상을 경험하고 있으나, 낙후지역의 아동은 90.1%가 경험이 없다(표 31).

3) 아동의 발달 수준

① 신체발달 수준

낙후지역의 아동, 도심지역의 아동 각각 30명을 대상으로 신장과 흉위를 측정하였다. 이 아동들의 연령은 유아원교육을 받고 입학할 무렵에 측정했으므로 만 6세에 해당한다.

지역에 따른 아동의 흉위와 신장의 평균치가 표 32에 제시되어 있다. 신장에 있어서는 도심지역의 아동이 낙후지역 아동보다 4.87cm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였다($t(58)=4.65, p<.01$). 그러나 흉위에 있어서는 도심지역의 아동이 낙후지역 아동보다 1.88cm 더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아니었다($t(58)=.73, p>.05$).

표 32. 흉위와 신장의 평균 치수

		단위 : cm					
부 위	지역	도 심 지 역	낙 후 지 역	부 위	지역	도 심 지 역	낙 후 지 역
	흉 위		55.95(3.63)		54.07(2.03)	신 장	

※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임

② 운동발달 수준

낙후지, 도심지 아동들을 대상으로 넓이 뛰기, 외발뛰기, 공치기, 그리고 두 원 사이 지나기의 네가지 운동을 시켜서 각각의 평균치를 제시한 것이 표 33이다.

표 33. 네가지 운동능력의 평균치

운 동	지역	도 심 지 역	낙 후 지 역	운 동	지역	도 심 지 역	낙 후 지 역
	넓 이 뛰 기		82. cm(13.0)		88.2cm(12.3)	공 치 기	
외 발 뛰 기		56회(9.6)	65회(12.4)	두원사이 지나기		3.5점*(0.76)	2.6점(1.3)

※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임 * 4점 만점임.

위의 표를 보면 넓이뛰기와 외발뛰기에서는 낙후지역의 아동들이 도심지역의 아동보다 수행이 우수하고, 공치기와 두 원 사이 지나기에서는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t검증을 한 결과, 두 원 사이 지나기에서만 두 지역 아동간의 수행차이가 의미있었다($t(58)=3.10, p<.01$).

이것으로 보아, 아동의 운동발달 수준은 거주지역에 따라서 별로 차이가 없으나 다만 두 원 사이 지나기와 같이 동작의 통제와 예민성을 요구하는 운동에서는 도심지 아동이 낙후지 아동보다 우수하다고 하겠다.

③ 인지발달 수준

두 지역 아동들의 인지발달수준을 비교하기 위하여 K-WISC(한국판 아동용 Wechsler 지능 검사) 중에서 세개의 하위검사를 골라 사용하였다. 선택된 하위검사들은 아동이 성장한 문화와 환경이 검사점수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인정되는 상식문제 30문항과 어휘문제 40문항 그리고 성장환경이 검사점수에 영향을 적게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숫자따라 외우기 28문항이었다. 두 거주지역 아동들이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취원한 후의 인지능력 발달정도를 비교해 보기 위하여, 두 지역 아동들 모두 유치원과 유아원에 취원한 후 인지발달 수준을 1차 검사하고 10개월 후에 다시 한번 재검사하여 두 측정치를 비교하였다. 대상아동들은 앞의 조사대상 아동들과 동일 아동들이었으나, 각 지역 30명중에서 2명은 재검사를 할 수 없어 각 지역에서 28명씩 모두 56명이 검사대상이 되었다.

표 34와 표 35를 보면, 상식문제 점수는 도심지역 아동들이 7.98점이고 낙후지역 아동들이 4.57점으로, 도심지역 아동들의 점수가 높다. 이 점수는 변량분석 결과 $F(1, 54) = 87.86$ 이고 $p < .01$ 로 1%의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있다. 또, 첫번검사 때의 평균 점수는 5.55이고 재검사

표 34. 집단(거주지역) 2차 검사에서 얻은 상식문제 점수의 평균치

집 단	2차검사	1 차 검 사	재 검 사	전 체
도 심 지 역		7.25(2.68)	8.71(1.60)	7.98
낙 후 지 역		3.86(2.05)	5.29(1.85)	4.57
전 체		5.55	7.00	

※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임.

표 35. 집단(거주지역)과 2차 검사에서 얻은 상식문제 점수의 변량분석표

변 량 원	SS	df	MS	F
피험자 간	525.92	55	—	—
A (집단)	325.72	1	325.72	87.86*
집단 내 피험자	200.20	54	3.79	—
피험자 내	344.5	56	—	—
B (2차검사)	58.58	1	58.58	11.06*
AB	.01	1	.01	—
Bx 집단 내 피험자	285.91	54	5.90	—
전 체	870.42	111	—	—

* $P < .01$ (※ 본 연구의 유의 수준은 $P < .01$ 로 한다.)

때의 평균점수는 7.00으로, 아동들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재검사 점수가 높다. 이 점수도 변량분석 결과 $F(1, 54) = 11.06$ 이고 $p < .01$ 로 1%의 유의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다. 상식문제 점수는 도심지역아동들이 낙후지역아동들에 비해서 높지만, 취원한 후 6개월 동안에 두 지역아동들이 모두 의미있게 발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 지역아동들간의 차이는 취원후에도 감소되지 않는다.

표 36. 집단(거주지역)과 2차 검사에서 얻은 어휘문제 점수의 평균치

집 단	2차검사	1 차 검 사	재 검 사	전 체
	도 심 지 역		5.86(2.87)	10.11(3.11)
낙 후 지 역		2.75(1.94)	5.07(1.62)	3.91
전 체		4.30	7.59	

()안은 표준편차

두 지역아동들의 어휘문제 검사점수는 표 36과 표 37에 나타나 있다. 도심지역 아동들의 어휘점수는 평균 7.98이고 낙후지역 아동들의 어휘점수는 평균 3.91로, 도심지역 아동들의 어휘점수가 높다. 또 이 점수는 변량분석 결과 $F(1, 54) = 76.6$ 이고 $p < .01$ 로 그 차이는 유의미하다. 두 지역 아동들 모두 취원후에 어휘점수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1차 검사의 평균치는 4.30인데 비해 재검사 때의 평균치는 7.59로 현저히 어휘력이 증가했으며, 그 차이는 변량분석 결과 $F(1, 54) = 46.02$ 이고 $p < .01$ 로 유의미하다.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취원한 아동들은 어휘력이 현저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7. 집단(거주지역)과 2차 검사에서 얻은 어휘문제 점수의 변량분석표

변 량 원	SS	df	MS	F
피험자 간	790.68	55	—	—
A (집단)	464.14	1	464.14	76.76*
집단 내 피험자	326.54	54	6.04	—
피험자 내	683.00	56	—	—
B (2차검사)	302.29	1	302.29	46.02*
AB	26.04	1	26.04	3.96
Bx 집단 내 피험자	354.67	54	6.57	—
전 체	1,473.68	111		

* $P < .01$

숫자따라 외우기 검사 점수는 표 38과 표 39에 나타나 있다. 도심지역 아동들의 검사점수 평균치는 9.41인데 비해, 낙후지역 아동들의 검사점수의 평균치는 6.25이다. 숫자따라 외우기 검사는 성장 환경의 영향이 비교적 적게 영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도심 아동들의 점수가 높았고, 그 점수의 변량분석 결과는 $F(1, 54) = 54.03$ 이고 $p < .01$ 로 그 차이

표 38. 집단(거주지역)과 2차 검사에서 얻은 숫자따라 외우기 점수의 평균치

집 단	2차검사		
	검 사	재 검 사	전 체
도 심 지 역	10.07(2.56)	8.75(1.64)	9.41
낙 후 지 역	4.29(2.34)	8.21(2.55)	6.25
전 체	7.18	8.48	

※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임.

표 39. 집단(거주지역)과 2차검사에서 얻은 숫자따라 외우기 점수의 변량분석표

변 량 원	SS	df	MS	F
피험자 간	55.28	55	—	—
A (집단)	279.72	1	9.27	54.03*
집단 내 피험자	279.55	54	5.18	—
피험자 내	556.50	56	—	—
B (2차검사)	47.58	1	47.58	8.13*
B at A ₁	24.44	1	24.44	4.18
B at A ₂	216.07	1	216.07	36.94*
AB	192.90	1	192.90	32.97*
Bx 집단 내 피험자	315.98	54	5.85	—
전 체	1,115.78	111	—	—

* P < .01

는 유의미하다. 취원후의 발달정도를 보면, 취원 당시에는 평균 7.18이나 취원 후에는 8.48로 검사점수가 증가했고, 또 변량분석 결과 $F(1, 54) = 8.13$ 이고 $p < .01$ 로 그 증가는 유의미하다. 그러나 거주지역에 의한 집단과 2차 검사점수와의 상호 작용 효과가 $F = 32.97$ 로서 $p < .01$ 로 의미있게 나온 것이 흥미롭다. 이 상호작용 효과를 보면, 도심지역 아동들은 1차 검사 점수에 비하여 재검사 때의 점수가 약간 감소했다. 그러나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것은 아마 검사 시행조건의 통제에 문제가 있지 않으나 추측된다. 숫자따라 외우기는 검사시행 주위의 조건이 소란하거나 하면 검사시의 주의집중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낙후지역 아동들은 1차 검사때 보다 재검사 때 도심지역 아동들 보다 현저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고, 그 차이는 변량분석 결과 $F = 36.94$ 로서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거주지역에 의한 집단과 그 2차검사 점수와의 상호작용 효과는 도심지아동들은 취원후 숫자따라 외우기 점수의 점수에서 의미있는 증가가 없었는데 비하여, 낙후지역 아동들은 취원후 숫자 따라 외우기 점수의 점수가 현저히 증가한데에 기인한다. 도심지아동들에 비해서 낙후지역아동들이 취원후에 숫자따라 외우기(숫자 기억)점수의 점수에서 현저한 증가가 나타난 것은 이 검사 점수의 증가를 취원후의 교육효과에 의한다고 보기 보다는 취원후의 검사 수검 태도의 향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상식문제나 어휘문제에 비하여 숫자따라 외우기는 수검때에

주의력이 필요하며, 이 주의력은 취원후의 교육에 의해 향상될 수 있고, 그 교육효과는 도심지아동들에 비하여 낙후지역아동들에게 더욱 크게 나타났을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은 문화실조 아동들이 유아원 입원당시 보다 유아원교육을 받은 후에 지능검사 점수가 증가하는 것은 확실하고, 이 증가는 검사 수검에 대한 동기와 주의력의 증가에 기인할 수 있다는 Zigler와 Butterfield(1968)의 해석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지발달면에서 볼때, 도심지아동들에 비하여 낙후지역아동들이 유아원이나 유치원 입원당시에 현저히 낮은 능력을 보이고 있고, 이 차이는 유아원과 유치원 교육을 받은 육개월 후에도 계속 유지되지만, 두 집단 아동들이 취원 후 육개월 동안 모두 인지능력이 발달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두 집단아동들의 인지능력의 차이를 좁히려면, Engelmann(1970) 및 Bereiter와 Engelmann(1968)의 주장과 같이, 저수혜아동들의 지능을 높이고 읽기 셈하기와 같은 기본적인 학습능력을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낙후지역 유아원용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IV. 결론 및 제언

도심지역과 낙후지역의 생태환경 조건과 아동들의 발달특성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태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여 유아교육프로그램을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본 조사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낙후지역 아동과 도심지역아동의 생태환경 및 심리적 발달 수준의 차이를 감안하여, 낙후지역 아동들을 위한 유아원 프로그램과 부모교육 프로그램 및 사회교육프로그램의 구성에 고려해야 할 몇가지 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유아원 프로그램을 위한 제안

① 생태환경적 자료에 기초한 제안

○ 낙후지역 유아원에서는 위생관념과 청결습관을 길러주는 교육프로그램이 강조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유아원 프로그램에 위생관념에 대한 교과과정과 청결습관의 훈련이 포함되어 있지만, 특히 낙후지역에서는 도심지역보다 이점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조사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낙후지역은 주위가 불결하고 위생시설 및 의료시설이 적으며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회수도 도심지역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주위가 늘 불결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아동들과 청결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아동들은 청결에 대한 개념이 다르게 발달할 것이다. 특히 어릴 때 형성된 청결개념은 변용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청결훈련과 위생관념을 교육시킬 수 있는 최초의 교육기관인 유아원에서 이 점을 특히 강조해야 할 것이다.

○ 낙후지역 유아원에서는 안전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낙후지역의 아동은 대체로 좁은 주거 공간에서 살고 있고, 또 주위에 시설이 구비된 일정한 놀이터가 없다. 따라서 자연 집주위의 산꼭대기, 하천, 쓰레기장 주변 및 거리가 아동들의 놀이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낭떠러지에 대한 조심, 오염된 하천수나 하천주변의 흙에 대한 주의 및 쓰레기장 주변의 깨어진 병 등의 위험한 폐기물에 대한 주의가 각별히 요청된다. 또 길거리는 자동차 자전거의 내왕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등원과 귀가시의 교통안전교육 뿐만 아니라, 놀이의 선택과 위험에 대한 교육이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

○ 낙후지역 유아원에서는 공공시설의 이용 및 견학을 위한 현장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본 조사결과에 의하면, 낙후지역의 주변에는 공공기관이 적고 이 지역의 아동들은 부모와 함께 여행하거나 견학하는 기회가 적다. 공공시설의 이용과 견학으로 공중 도덕심을 기르고 전문을 넓히기 위해서는, 유아원 프로그램에서 현장관찰 학습의 기회를 늘려 가정에서는 가질 수 없는 현장관찰 학습의 경험을 보완해 줄 것이 요청된다.

○ 낙후지역 유아원에서는 아동들의 간식을 빵종류 보다는 우유제품이나 과일종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식 및 식사내용에 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낙후지역 아동들은 탄수화물로 된 간식과 주식을 많이 하는 편이다.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국가적인 보조가 가능하다면, 가정에서 부족되기 쉬운 영양을 보충한다는 의미에서 유아원에서는 우유제품과 과일종류의 간식을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

② 발달 수준에 관한 자료에 기초한 제안

○ 체위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영양관리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두 지역 아동의 신체 발달 수준을 비교하면, 신장은 도십지 아동보다 낙후지역의 아동은 무려 4.87cm가 뒤지며, 흉위로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아닐지라도 1.88cm가 뒤떨어진다. 그러므로 낙후지역 아동들에게는 체위향상을 위한 체육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동시에 영양관리 프로그램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되겠다.

○ 운동기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소근육운동기능 개발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넓이뛰기, 외발뛰기, 공치기에서는 두 지역 아동간에 별 차이가 없으나, 「두 원 사이로 걷기」에서는 낙후지역의 아동들이 뒤떨어진다. 이것은 낙후지역의 아동들의 운동기능 중 소근육과 여러 감각 운동의 협응이 보다 미숙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체능 프로그램에서는 소근육 운동 및 감각·운동 협응 능력을 길러주는 데 특별한 배려가 요청된다.

○ 낙후지역 유아원에서는 인지적 보상교육이 필요하다.

낙후지역 아동들은 도심지역 아동들에 비해 신체발달이나 운동발달에는 크게 뒤떨어지지 않으나, 인지발달 수준은 상당히 뒤떨어져 있음이 본 조사연구의 결과로 밝혀졌다. 유아원이나 유아원에 입원할 당시의 인지발달 수준에도 두 거주지역 아동들에 현저한 차이가 있지만 6개월 동안의 교육을 받은 후에도 그 차이는 감소되지 않았다. 이 기숙(1982), 이 원영(1976), Bissell(1970) 및 Engelmann(1970)도 문화실조 아동들에게는 말하기, 읽기, 셈하기 등의 학교 학습의 기초가 되는 인지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학교에 입학하기 이전의 인지능력의 차이가 입학으로 감소된다고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동들이 입학해서 학습활동에 적응할 수 있게 해 주는 준비교육, 말하자면 인지적 측면의 보상교육이 낙후지역 유아원에서는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2) 부모교육을 위한 제안

1960년대 이후에 일어난 유아교육에 대한 연구와 혁신을 통하여 형성된 새로운 개념은 부모교육에 대한 강조이다(이 기숙, 1982; 정 원식, 1976; Bronfenbrenner, 1974). 유아원은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도 교육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유아교육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유아원의 교육 활동의 효과는 가정과 연계를 가지고 유아원과 가정에서 일관성 있게 진행될 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유아원에서 부모교육을 실시한다는 전제하에서 낙후지역 부모교육프로그램에서 강조되어야 할 측면에 대하여 몇가지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 낙후지역 유아원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는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의 중요성과 상호작용의 방법에 대한 과정이 강조되어야 한다.

낙후지역 아동들의 부모는 출근시간이 빠르고 귀가 시간이 늦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적다. 또 낙후지역 아동의 어머니가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지낼 수 있는 절대 시간의 부족은 유아원에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부모는 자녀에게 의, 식, 주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며 왜 중요한지, 또 함께 시간을 보낼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아동의 발달을 돕는 것인지에 대하여 부모를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낙후지역 유아원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는 상벌체계에 대한 과정이 강조되어야 한다.

본 조사연구의 결과를 보면 낙후지역 아동들은 거의 상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 또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낙후지역의 부모들은 아주 벌을 하지 않거나 벌을 하는 경우는 질책과 체벌의 방법을 쓰는데, 도심지역의 부모에 비해 체벌을 많이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들의 학습동기를 강화하고 행동의 내적 기준이 되는 양심과 자아이상을 발달시키려면 부모는 잘한

행동과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적시에 적절한 보상과 벌을 주어야 하고 행동의 한계를 분명히 정해 줄 필요가 있다. 낙후지역 아동들 부모의 교육정도, 직업 및 현재 아동들에게 행사하는 상벌형태를 고려한다면, 부모교육에서 특히 상벌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이 바람직할 것이다.

○ 낙후지역 유아원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는 아동의 장난감과 아동도서의 중요성과 장난감 및 도서의 이용방법에 대한 과정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낙후지역 아동들은 도심지역 아동들에 비해서 장난감과 도서를 적게 가지고 있는 편이다. 장난감과 도서를 소유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하므로 부모교육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유아원이 낙후된 지역의 도서관 역할을 담당하여 도서와 장난감들을 구비하고 각 가정에 빌려줄 수 있도록 한다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정부나 민간단체의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정부차원의 배려가 요청된다.

○ 낙후지역 유아원의 부모교육은 공휴일이나 저녁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대체로 부모교육은 낮시간에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낙후지역에는 취업하는 어머니가 많다는 점과 또한 아버지도 부모교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부모교육시간에 대한 새로운 배려가 요청된다.

3) 사회교육을 위한 제안

본 조사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도심지역과 낙후지역간에 차이가 거의 없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시설은 TV 밖에 없다. 이것은 TV를 낙후지역의 유아교육과 부모교육을 위한 매체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텔레비전 방송국의 프로그램에도 유아교육과 부모교육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나 대체로 중산층 아동을 목표대상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고 있는 인상이다. 낙후지역 아동들이 생태학적 특성과 심리적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이 지역 아동들의 발달을 돕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이다. TV 프로그램에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상술한 제안이 모두 포함될 것이다. 즉 간단히 요약하면, 아동들을 위해서는 주위와 자신에 대한 청결습관, 위생관념, 공공시설에 대한 현장교육, 안전교육 및 인지교육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 부모교육을 위해서는 부모자녀간의 함께 지내는 시간의 중요성과 그 방법 및 상벌체계, 행동의 허용한계에 대한 중요성과 그 방법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재은, 한국 유아교육의 현황분석, 유아교육 정책의 진단과 발전방향 세미나, 한국교육개발원, 1983.
- 김광웅, 김은실, 이칭찬, 이상주, 이성진, 한국유아원 교육의 현황과 문제, 행동과학연구, 8.5. 서울 : 행동과학연구소, 1975.
- 경향신문, 유아교육의 체계화 절실, 1982. 11월 12일자.
- 부모교육, 유아교육심포지움편, 한국어린이 교육협회, 1983. 6.
- 서봉연, 사회문제로서의 아동의 성장장애—빈곤지역 아동을 중심으로, 아카데미 논총; 8집, 1980. 12.
- 서봉연, 이순형, 발달심리학, 서울 : 중앙적성연구소 출판부, 1980.
- 이경우 역, Osborn. D. K. 저, 유아교육의 역사적 고찰; 정민사, 1981.
- 이기숙, 유아교육의 질적향상과 교사교육, 유아교육 정책의 진단과 발전방향 세미나, 한국교육개발원, 1983.
- 이기숙, 유아교육과정, 교문사, 1982.
- 이연섭, 유아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 유아교육 정책의 진단과 발전방향 세미나, 한국교육개발원, 1983
- 이원영, 취학전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국가발전과 어린이(이성진, 허형편), 배영사. 1976.
- 이영자, 유아교육의 질적향상과 교사교육, 유아교육 정책의 진단과 발전방향세미나, 한국교육개발원, 1983.
- 이인서, 어린이집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1.
- 이재창, 김성일, 고진영, 한국유아교육의 현황분석, 연구보고 RR 82—10 한국교육개발원, 1982.
- 이홍우, 어린이의 지적환경, 국가발전과 어린이(이성진, 허형편), 서울 : 배영사, 1976.
- 정원식, 2000년대를 향한 유아교육, 유아교육정책의 진단과 발전방향세미나, 한국교육개발원, 1983.
- 조영기, 도시 빈곤층에 대한 실험적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2.
- 한충효, 아동발달에 있어서의 빈곤환경의 효과, 인문학연구, 17, 강원대학교, 1982.
- Ainsworth, M.D., The development of infant-mother attachment, In B.M. Caldwell & H.N. Ricciuti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 3,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3,
- Bereiter, C., & Engelmann, S., Teaching disadvantaged Children in the preschool,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66.
- Bissell, E., The cognitive effects of preschool programs for disadvantaged children, Washington, D.C.: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Development, 1970.
- Bloom, B.S., Stability and change in human characteristics, New York: John Wiley, 1964.
- Bowlby, E., Attachment and loss, Vol. 1. New York: Basic Books, 1968.
- Bronfenbrenner, U.,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8.
- Caldwell, B., & Richmond, E., The Children's center in Syracuse, In Chandler, Lourie & Peters (Eds.) Early child case: The New Perspectives, New York: Aldine, 1968.
- Cazden, C.D., et al., Language development in day-care Programs, In E.L. Frost (Ed.), Revisit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3, pp. 377-397.
- Cole, M., & Bruner, E.S., Preliminaries to a theory of cultural differences,
- Engelmann, S., The effectiveness of direct instruction on I.Q. performance and achievement in

- reading and arithmetic. In E. Hellmuth (Ed.), *Disadvantaged child*, Vol. 3, New York: Brunner/Magel, 1970.
- Gordon I. E., *The infant experience*, Columbus, Ohio: Merrill, 1975.
- Ilben, G., *Kompensatorische Erziehung, Analysen Amerikanischer Programme*, Juventa Verlag, 1971.
- Lully, E., *Quality care for infants*, Sharing, Summer, 1973.
- Harper, L.V., The Young as a source of stimuli controlling caretaker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1971, 4, 73-88.
- Honzik, M.P., Environmental correlates of mental growth, *Child Development*, 1967, 38, 337-363.
- Miller, L.B., & Dyer, E.L., Four Preschool Programs: Their dimensions and effect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Child Development*, 1975, 30 (Serial No. 162).
- Scarr-Salapatek, S., Genetics and the development of intelligence. In F.D. Horowitz (Ed.),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 4,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75.
- Weikart, D.P., Relationship of curriculum teaching and learning in preschool education, In E.C. Stanley (Ed.), *Preschool programs for the disadvantaged*,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2.
- Ziegler, E., & Bitterfield, E.L., Motivational aspects of changes in I.Q. test performance of culturally deprived nursery 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1968, 39, 1-13.
- Zimmer, E., *Curriculumentwicklung in Vorschulbereich*, Band I, R. Piper & Co. Verlag Munchen, 1975.